

시온의 토라와 “들음”의 이슈에 대한 고찰

-최종 형태에서 본 이사야 2:2-4의 역할을 중심으로-

장세훈*

1. 들어가는 말

이사야서 학계는 그동안 술한 해석학적 변화를 목도해 왔다. 이사야서 연구에 한 획을 그었던 독일 구약신학자 뉘(Bernhard Duhm)의 이사야서 주석이 1892년에 출간된 후, 이사야서는 세 권의 독립된 책의 묶음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¹⁾ 뉘의 이사야서 세 문서 가설은 곧바로 이사야서 연구에 핵심적인 이론으로 수용되며 이사야서 연구를 지배하게 되었다. 물론 뉘의 이론에 반박하며 새로운 수정안을 제기하는 입장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²⁾ 이사야서를 세 권으로 분리하는 뉘의

*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구약학

- 1) Bernhard Duhm, *Das Buch Jesaja*, HKAT 3.1 (Tübingen: Vandenhoeck & Ruprecht, 1892). 뉘(Duhm)의 이사야서의 세 저자 이론 이전에 이미 유대인 랍비 이븐 에스라(Abrahm Ibn Zra, 1089-1167), 뒤덜라인(Döderline), 아이히혼(J. G. Eichhorn)과 같은 학자들이 이사야서의 통일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예를 들면, 뒤덜라인과 아이히혼은 이사야서를 2권(사 1-39장과 사 40-66장)으로 분리한 바 있다. 그러나 이사야서를 세 권으로 분리시켜 학문적으로 논증한 최초의 신학자는 바로 뉘이었다. 뉘의 이사야서 해석에 대한 평가로는 Christopher R. Seitz, *Zion's Final Destiny: The Development of the Book of Isaiah* (Minneapolis: Fortress, 1991), 1-14; H. G. M. Williamson, *The Book Called Isaiah: Deutero-Isaiah's Role in Composition and Redaction* (Oxford: Oxford Press, 1994), 2-3을 보라.
- 2) 옥스퍼드 대학교의 구약학자 윌리엄슨은 이사야 1-39장과 이사야 40-55장을 분리

이론은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가령 이사야서를 연구하는 여러 학자들은 이사야 1-39장을 제1이사야, 이사야 40-55장을 제2이사야, 이사야 56-66장을 제3이사야로 부르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사야서의 역사를 재구성하여 본문을 파편화시켰던 급진적인 통시적 해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새로운 이사야서 읽기를 제시하는 입장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³⁾ 이들은 독자들이 이사야서의 최종 형태에 관심을 돌리게 했다. 그들은 기존의 역사 비평학의 통시적 해석이 지나치게 이사야서를 파편화시켜서 한 권의 통일된 본문으로 읽고 해석하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한다.⁴⁾ 나아가 그들은 이사

시키지 않으며, 포로기 시대 신명기 전통의 기자가 이사야 1-55장 전체를 편집했다고 주장한다. 그의 책, *The Book Called Isaiahs: Deutero-Isaiah's Role in Composition and Redaction*에 나타난 그의 논증을 보라. 반면에 스택은 제3이사야를 단독 문서로 취급하지 않으며, 제2이사야와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한다. 그러므로 제2이사야와 제3이사야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본다. 특히 그는 이사야서의 통시적 해석뿐만 아니라 공시적 해석의 동향을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특히 지난 10년간 이사야서 연구의 권위자들은 이사야, 제2이사야(Deutero-Isaiah), 제3이사야(Trito-Isaiah), 다른 문서 예언자들이 누구였는가에,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혹은 없는가에 관한 덧없는 가설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해 왔다. 그들은 확실하다고 여겨졌던 통시적 관찰들을 의심해 왔으며,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사야서 전체를 확고한 출발점으로 삼아왔다[Odil Hannes Steck, *The Prophetic Books and Their Theological Witness* (St. Louis: Chalice Press, 2000), 25-26.].

심지어 코긴스(Richard J. Coggins)는 제2이사야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 그의 논문, "Do We Still Need Deutero-Isaiah," *JOT* 80 (1998), 77-92를 보라. 이사야 1-39장 연구의 통시적 해석의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면, John Barton, *Isaiah 1-39* (London: T&T Clark, 2003)을 보라.

- 3) 최근 이사야서 연구의 동향에 대해서는 H. G. M. Williamson, "Recent Issues in the Study of Isaiah," David G. Firth and H. G. M. Williamson, eds., *Interpreting Isaiah: Issues and Approaches* (Downers Grove: IVP Press, 2009), 21-40을 보라. 이사야서의 최종 형태로서의 통일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대표적인 한국 구약학자의 글로는 박경철, "이사야서 최종 형태 구성의 신학," 『Hermeneia Today』 31 (2005), 4-14를 보라. 또한 장세훈, 『한 권으로 읽는 이사야서』 (서울: 이레서원, 2004)도 참고하라.

야서를 세 본문으로 나누기보다는, 신학적 문학적 정경적 통일체로서 읽으며 하나의 통일된 본문으로 취급할 것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이사야서 연구의 해석학적 전환에 대해 박경철은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최근의 최종 형태에 대한 통시적 연구 방법의 관심은 최종 편집자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오랜 역사 과정에 어떻게 술한 단편들이 모아지고 편집되어가면서 현 최종 형태의 전체 이사야서로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전(全) 역사 과정에 관심한다. 그러나 이러한 통시적 방법론은 그 시작에서부터 현 최종 형태의 모습을 다시 각 문서층으로 찢는 일로부터 시작해야하는 그 방법론상의 문제를 갖고 있으며 각 문서층들에 대한 구분 역시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 못한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에 반해 최종 형태에 대한 공시적 연구의 관심은 각 문서층의 발전과정의 전(全) 역사를 쫓아가는 일이 아니라 최종 형태 본문 자신이 드러내 주고 있는 전체 책의 통일된 주제를 말하는 데 있다.....한 마디로 지금까지의 이사야서 연구는 “한 예언자로부터 세 권에 대한 연구를 지나 한 권에 대한 연구”의 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다.⁵⁾

이처럼 최근의 이사야서 연구가들은 이사야서의 통시적 해석뿐만 아니라, 공시적 해석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이들은 이사야서 전체를 한 권으로 구성한 편집자의 신학적 의도를 찾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최종 형태로 주어진 이사야서의 정경적 맥락에 집중하기도 하며, 몇몇 학자들은 이사야서의 문학

4) 예를 들면, 역사 비평학의 역사적 재구성에 대한 멀루진(Roy F. Mulugin)의 비판은 매우 예리하다. 그는 역사 비평학에 대해 “놀랍도록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진 역사 비평적 분석들은 폭넓은 지지를 받는 데 실패하였다. 그 이유는 그 접근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불충분한 증거 때문이다”라고 진단한다. 그의 논문, “Prophetic Books and the Problem of Historical Reconstruction,” Stephen Breck Reid, ed., *Prophets and Paradigms: Essays in Honor of Gene M. Tucker*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64-65를 보라.

5) 박경철, “이사야서 최종 형태 구성의 신학,” 6.

적 특징을 강조하기도 한다.⁶⁾ 비록 이들의 해석학 방식에는 많은 차이들이 있지만, 그들은 이사야서를, 한 권의 통일된 본문으로 읽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해석학 흐름 속에서 이사야서를 통일된 본문으로 취급하면서 종말의 시온과 토라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이사야 2:2-4에 초점을 둘 것이며, 최종 형태의 맥락 속에서의 그 공시적 기능과 역할을 고찰해 볼 것이다.

2. 최종 맥락 속에서 이사야 2:2-4의 구성에 대한 최근의 논의들

이사야 2:2-4은 이사야서 가운데 종말의 시온의 회복을 묘사하는 대표적인 본문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이 단락의 문학적 구성을 결정함에 있어, 많은 학자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피력해 왔다. 주로 학자들은 이사야 2:2-4이 이사야 1장에 종속되어 있는가 아니면 이사야 1장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지 집중적으로 논의해왔다. 가령, 아크로이드(Peter R. Ackroyd)는 이사야 2:1의 표제의 역할을 설명할 때, 이 표제가 이사야 2:2-4의 서론으로서만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한다.⁷⁾ 그는 이사야 2:1은 이사야 2:2-4과 유사 단락인 미가 4:1-3과의 차별성을 두어 이사야 2:2-4이 이사야의 저작임을 밝히기 위해 삽입되었다고 주장한다. 어떤 이들은 이사야 2:1을 이사야 2-12장의 서론으로 보기도 한다.⁸⁾ 반면에 몇몇 학자들은 이사야 2:2-4이 원래 이사야 1장에 속해 있었다고 주장한다.⁹⁾ 그러나 다른 이들은 이사야 2:2-4을 이사야 1장과

6) 이사야서의 통일성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살펴보려면 장세훈, 『한 권으로 읽는 이사야서』, 22-77을 보라. 또한 최근의 이사야서의 정경적 해석에 관해서는 장세훈, “이사야서의 정경적 해석동향,” 『구약논단』 22 (2006), 46-63을 보라.

7) Peter R. Ackroyd, “A Note on Isaiah 2, 1,” *ZAW* 75 (1963), 320-321.

8) 이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로는 Francis Landy, “Torah and Anti-Torah: Isaiah 2:2-4 and 1:10-26,” *Biblical Interpretation* 11 (2003), 317-329를 보라.

9) Yehoshua Gitay, *Isaiah and His Audience: The Structure and Meaning of Isaiah 1-12*,

연결하기보다는 이후의 단락인 이사야 2:5-22과 연결시키는 것을 선호한다.¹⁰⁾ 그러나 최근 들어 이사야 2:2-4을 좁은 맥락에서 취급하기보다는 이사야서 전체의 맥락 속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려는 시도가 두드러진다. 여기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박경철과 스위니(Marvin A. Sweeney)의 입장을 고찰해 볼 것이다.

박경철의 이사야서 연구는 최근 크게 논의되고 있는 정경적 접근과 그 맥을 같이한다.¹¹⁾ 박경철의 접근은 그의 지도교수인 프랑크 크뤼제만(Frank Crüsemann)의 영향뿐만 아니라 본문의 최종 형태의 정경적 해석을 주창하는 롤프 렌트르프(Rolf Rendtorff)의 입장도 많이 반영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박경철은 본문 해석에서 최종 구성 형태에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인다. 그는 지난 역사 비평학의 과오로 본문의 파편화를 지적한다. 그는 역사 비평학의 심각한 문제점 가운데 하나로서 본문을 찢어서 있는 그대로의 본문을 올바르게 취급하지 못했다고 진단한다.

그는 “구약성서신학에 새로운 해석학적 관심이 일어나게 된 동기는 역사 비평 방법론들이 구약성서의 각 책들을 술한 문서층들로 구분하고 찢어온 것들로 인해 교회에 주어진 현 성서를 읽는 독자들이 성서의 메시지를 읽고 이해하는 데 커다란 혼란을 가져다주었다는 데 있다.”¹²⁾ 고 평가한다. 그러므로 박경철은 역사 비평학의 근본적인 결함은 본문 해석의 시작부터 잘못되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역사 비평학은 본문을 먼저 찢어서 파헤쳐 놓은 다음, 찢어진 조각들이 어떻게 현재의 형태로 발전되었는가를 설명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박경철은 본문을 먼저 찢지 말고 현재의 최종 형태 그대로 본문을 읽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최종 형태의 구성은 그 자체의 신학적 의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studia semitica neerlandica (Assen/Maastricht: van Gorcum, 1991), 35-45.

10) Jonathan Mogoner, “Isaiah 2:1-4:6: Some Poetic Structures and Tactics,” *Amsterdamse Cahiers* 3 (1982), 84-85.

11) 그의 글과 다양한 연구 자료들은 그의 홈페이지에 잘 소개되고 있다. www.ot.re.kr.

12) 박경철, “이사야서 최종 형태 구성의 신학,” 6.

이와 같은 최종 형태의 구성에 대한 관심에 근거하여, 박경철은 이사야서를 최종 형태의 맥락 속에서 해석하려고 한다. 그는 이사야서를 해석할 때, 이사야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본문을 읽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그는 이사야서의 첫 부분을 해석하는 것이 전체 이사야서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가 된다고 역설한다. 예를 들면 이사야 1:1-2:4는 이사야서 전체의 서론 역할을 수행하며, 전체 이사야서에 깔려 있는 신학적 주제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사야서 전체 한 권의 현 최종 형태에 대해서 묻고자 할 때, 중요한 것은 이사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의 순서대로 읽어 가는 것이다. 이때 무엇보다도 이 책의 가장 첫 부분이 무엇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지를 주의해 읽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전체 이사야서의 현 최종 형태는 우연에 의해 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전제한다면 더 그렇다. 이사야서의 첫 단락인 1:2-2:4에서는 제의, 사회 정의, 종말론적 표상인 시온의 회복과 야웨의 대적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온 민족들의 시온 순례의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¹³⁾

박경철은 이사야 1:1-2:4에 내포된 다양한 주제들이 어떻게 전체 이사야서에 반영되고 있는가를 증명하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박경철은 이사야 1:1-2:4에 등장하는 “제의”, “사회 정의”, “시온의 회복”과 “야웨의 대적에 대한 심판”의 주제들이 전체 이사야서의 구성 속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그는 이사야 1:1-2:4에 반영된 주제들이 이사야 56:1-8과 이사야 58장과 아울러, 이사야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이사야 65:17-66:24에도 반영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그러므로 박경철은 이사야 1:1-2:4에 나타나는 이 네 주제들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결속되어 있으면서 이사야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종 형태의 구성과 그 신학

13) 박경철, “이사야서 최종 형태 구성의 신학,” 8.

적 의도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박경철은 이사야서의 최종 형태의 구성이 사회 정의의 문제가 구원의 문제와 분리될 수 없음을 분명히 일깨워 준다고 역설한다. 박경철의 이사야서 해석은 이사야서의 네 가지 중심 주제들이 어떻게 이사야서 전체에서 서로 분리되지 않고 결속되어 최종 형태로서의 신학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매우 탁월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최종 형태의 맥락 속에서 이사야 2:2-4을 다루는 박경철의 입장은 몇 가지 의문점을 남긴다. 첫째, 이사야 2:2-4을 이사야 1장과 연결해서 보는 그의 해석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과연 이사야서 전체의 서론을 이사야 1장이 아니라 이사야 1:1-2:4로 봐야 하는가? 필자가 보기에, 이사야 2:2-4의 문맥과 기능은 이사야 1장과 관계뿐만 아니라 이사야 2:5-22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고찰해야 한다. 가령 이사야 2:2-4에 등장하는 시온의 회복의 이미지는 동일하게 근접 단락에 속하는 이사야 4:2-6도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2:2-4은 이전 단락뿐만 아니라 이후 단락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또한 이사야 2:1의 표제도 이사야 2:2-4의 기능을 이전 단락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후 단락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해하도록 이끌어 준다. 그러므로 이사야 2:2-4을 일방적으로 이사야 1장과 연결시켜 이사야 1:1-2:4을 이사야서 전체의 서론으로 취급하는 박경철의 해석은 논쟁의 여지를 남긴다.

더욱이, 이사야서를 최종 형태로 취급하고자 하는 공식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는 통시적 해석의 한계를 보여준다. 그는 이사야서의 최종 형태의 구성 시기를 포로기 후 에스라-느헤미야 시대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재구성은 최종 편집자의 의도와 그 신학에 초점을 두는 편집 비평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¹⁴⁾ 그러나 이사야서의 최종 형태의 구성 시기를 과연 에스라-느헤미야 시대로 한정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사야서의 최종 형태의 구성은 과연 그 시기를 에스라-느헤미야 시대로 돌리고 있는가? 필자가 보기에, 박경철의 역사적 재구성은 또 다른

14) 박경철, “이사야서 최종 형태 구성의 신학,” 8.

역사적 재구성의 가설에 기초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이사야 2:2-4이 전체 이사야서의 맥락 속에서 서론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그의 견해는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둘째, 스위니(Marvin A. Sweeney) 또한 이사야서를 세 권의 책으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책으로 취급하는 대표적인 학자이다. 그러나 그의 입장은 박경철과 같이 정경적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편집 비평적 입장을 반영한다. 다시 말해 스위니는 최종 정경 형태의 구성 시기를 에스라-느헤미야 시기로 규정한 뒤,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이사야서의 전체 구성과 그 편집의 의도를 이해하려고 한다.¹⁵⁾

스위니는 이사야 2:2-4을 이사야 1장과 결합시켜 이사야 1:1-2:4을 이사야서 전체의 서론으로 취급했던 박경철의 입장과는 달리, 이사야 2:2-4을 이사야 1장과 분리시켜 해석한다. 먼저 스위니는 이사야 2:1-4의 위치를 결정할 때 전체 이사야서의 구조 안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스위니는 이사야서의 구조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스위니에 의하면, 이사야서는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된다. 전반부는 이사야 1-33장, 후반부는 이사야 34-66장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스위니는 이사야 2:1이 전반부의 서론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¹⁶⁾ 스위니에 의하면, 이사야서의 전반부는 이사야 1장, 이사야 2-4장, 이사야 5-12장, 이사야 13-23장, 이사야 24-27장, 이사야 28-33장으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스위니는 이사야 2:1을 좁게는 이사야 2-4장에 포함시키며, 나아가 이사야 2-4장과 이사야 5-33장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서 이사야서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이사야 2-33장이 “주의 날”(The Day of the LORD)이라는 주제로 결속되어 있다고 강조한다. 그럼에도 스위니는 이사야 2:2-4를 더 넓은 맥락에서 이해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이사야 2:2-4이 전체 이사야서의 맥락 속에 위치하게 된

15) Marvin A. Sweeney, *Isaiah 1-39: with an Introduction to Prophetic Literature* (Grand Rapids: Eerdmans, 1996).

16) Marvin A. Sweeney, *Isaiah 1-39: with an Introduction to Prophetic Literature*, 45.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스위니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최종 편집의 의도를 강조한다. 스위니에 의하면, 이사야 2:2-4은 열방의 백성들이 토라의 말씀을 듣고 시온의 예배에 참여하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바, 이방인들이 시온의 백성으로 참여하게 되는 새로운 시대를 제시한다. 스위니는 이와 같은 이미지는 에스라-느헤미야 시대의 개혁과 연관성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스위니는 이사야서 전체가 에스라-느헤미야의 개혁을 지지하기 위한 의도로서 구성되었다고 역설한다.¹⁷⁾

스위니는 이사야서 전체의 구성 시기를 에스라-느헤미야 시대로 돌리는 구체적인 근거들을 제시한다.¹⁸⁾ 첫째, 이사야서에는 열방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들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다. 가령, 이사야서에서 여호와와 모든 이방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특히 이방의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 그의 주권적 통치를 수행할 것임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스위니는 이사야서에 나타난 열방에 대한 여호와와의 주권적 통치는 페르시아 시대를 반영해 준다고 본다. 둘째, 스위니는 이사야서의 최종 형태는 성전이 이미 세워졌으나(사 56장; 사 60-62장), 그 영광이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상태(사 65-66장)라고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은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주전 5세기 후반부 시대와 일치한다. 셋째, 스위니는, 이사야서의 최종 형태는 의인과 악인의 대립 구도를 나타내 주는 바, 이는 에스라의 개혁 시기에 에스라의 개혁을 지지하는 의로운 유대인들과 이 개혁을 반대하는 자들과의 대립 구도와 분리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끝으로 스위니는 이사야서와 에스라의 개혁 사이에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여호와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떠는 자들”로 표현한 점, 언약을 준수하지 않는 자들을 비난하는 점, 언약 준수의 중심으로서 안식일을 강조하는

17) Marvin A. Sweeney, “The Book of Isaiah as Prophetic Torah,” Roy F. Melugin and Marvin A. Sweeney, eds., *New Visions of Isaiah*, JSOTSup 214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50-67.

18) Marvin A. Sweeney, “The Book of Isaiah as Prophetic Torah,” 57-58.

점, 여호와와의 토라를 강조하는 점, 성전의 중심성을 지지하는 점, 이방 인들과 고자들을 언약 백성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 점 등은 이러한 공통점을 시사해 준다.

그렇다면 이사야 2:2-4는 이사야서의 최종 형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스위니에 따르면, 이사야 2:2-4에 나타난 열방의 시온 참여와 토라 준수는 에스라 개혁을 지지하는 전체 이사야서의 의도와 부합한다. 다시 말해, 이사야 2:2-4는 토라에 의한 시온의 중심성을 강조하는 바, 이 시온의 토라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기능한다. 그러므로 비록 이방인이라 해도, 토라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로 나아오는 자는 언약 공동체의 회원이 될 자격이 주어진다고 시사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미지가 이방 여인을 추방시켰던 에스라의 개혁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스위니는 에스라의 개혁 시대는 이방인들을 무조건 배척한 것이 아니라 언약에서 벗어나 자식들을 이교도로 양육시켰던 이방 여인들에 대한 추방에 초점을 두었다고 한다. 반면에 비록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유대인으로 회심하는 자들은 모두가 동일하게 언약의 백성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므로 에스라의 개혁 시대는 자식들을 이교도로 양육했던 이방 여인의 추방과 아울러, 유대교로 개종하는 이방인들의 수용도 중요시되었다. 그런 점에서 스위니는 이사야 2:2-4이 토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방인들이 시온에 참여한 것은 에스라의 개혁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욱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럼에도 스위니의 해석은 박경철의 입장에서 드러난 동일한 한계를 보여준다. 이사야서 전체의 구성 시기를 에스라-느헤미야 시대로 돌리는 것은 하나의 추론적 가설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이사야서의 최종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 이사야서를 분석하는 스위니의 입장은 사실상 그의 해석학적 전체의 주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편집 비평적 관점에 근거한 스위니의 주관적 분석에 대해 멀루진은 “스위니가 제시한 구조는 본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스위니가 구성해 낸

구조이다. 스위니가 그 구조를 발견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가 그 구조를 만들어 낸 것이다.”¹⁹⁾라고 평가한다. 스위니는 본문에 나타난 편집자의 의도를 마치 본문 속에서 발견한 것인 양 생각한다. 그러나 콘래드(Edgar W. Conrad)의 지적대로, 실상 스위니가 편집자의 의도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 편집자의 의도는 자신의 해석학적 방법론으로 구성한 것에 불과하다.²⁰⁾

3. 최종 형태의 맥락에서 본 이사야 2:2-4의 역할과 “들음”의 이슈

앞서 살펴본 대로, 이사야 2:2-4은 종말의 시온의 역할과 중요성을 부각시켜 주는 바, 전체 맥락 속에서의 기능을 고찰해 보았다. 대체로 학자들은 이사야 2:2-4을 이전의 본문인 이사야 1장과 연결시키거나 아니면 이후의 본문인 이사야 2:5-4:6 혹은 이사야 2:33장의 서론 기능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이사야 2:2-4은 이사야 1장과도 연결될 뿐만 아니라 이후의 본문과도 연결되는 복합적인 연결고리를 형성한다. 그렇다면 이사야 2:2-4은 이사야서 전체에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이사야 2:2-4의 선행 단락과 후속 단락과의 상호 연결점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19) Roy F. Melugin, “The Book of Isaiah and the Construction of Meaning,” Craig C. Broyles and Craig A. Evans, eds., *Writing and Reading the Scroll of Isaiah: Studies of Interpretive Tradition* (Leiden: Brill, 1997), 48.

20) W. Conrad, *Reading Isaiah*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1); 장세훈 역, 『이사야서 읽기』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2), 45.

3.1. 이사야 2:2-4과 후속 단락들과의 연관성

앞에서 살펴본 대로, 몇몇 학자들은 이사야 2:2-4을 이사야 2-4장의 맥락 속에 위치시켜 이사야 2-4장의 서론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스위니와 같은 학자들은 이사야 2:2-4을 이사야 2-33장의 서론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는 이사야 2:2-4을 포함하는 원래의 근접 맥락을 이사야 2-12장으로 해석한다. 이사야서에서 표제는 3회 등장하며(사 1:1, 사 2:1, 사 13:1), 이 표제들을 통해 이사야서의 전반부를 큰 단위로 구분할 때, 이사야 2:2-4은 다음의 표제가 등장하는 13장 이전의 12장까지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이사야 2-12장은 이사야의 소명 이야기를 전하는 이사야 6장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독립된 단락으로 주제 교차 대구를 형성한다<표 1>.²¹⁾

<표 1>

- A. 열방이 참여하는 종말의 시온의 회복(사 2-4장)
 - B. 유다의 멸망 선고(사 5장)
 - C. 이사야를 부르시는 거룩한 왕(사 6장)
 - B'. 유다의 멸망 선고(사 7-8장)
- A'. 남은 자들이 참여하는 종말의 시온의 회복(사 9-11장)
결론(사 12장)

위의 구조에서 이사야 2:2-4이 속한 이사야 2-4장은 마지막 단락인 이사야 9-11장과 병행을 이루면서 열방이 참여하는 종말의 시온과 남은 자들이 몰려오는 종말의 시온이 짝을 이룬다. 특히 이사야 2-4장 안에서 이사야 2:2-4은 이사야 4:2-4과 함께 “종말의 시온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병행을 구성한다<표 2>.

21) Gary V. Smith, *Isaiah 1-39*, NAC (Nashville: B&H Publishing Group, 2007), 122.

<표 2>

- A. 열방이 참여하는 종말의 시온의 회복(사 2:2-4)
- B. 교만에 대한 비난(사 2:5-22)
- B'. 교만에 대한 비난(사 3:1-4:1)
- A'. 남은 자들이 참여하는 종말의 시온의 회복(사 4:2-4:6)

이처럼 이사야 2:2-4은 후속 단락과의 관계에서 이사야 2-4장뿐만 아니라 이사야 2-12장의 서론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열방이 참여하는 종말의 시온의 회복에 대한 강렬한 이미지를 제공한다. 더욱이 이사야 2:2-4에서 종말의 시온에 참여하는 열방의 백성들이 이사야 4:2-6에 묘사된 시온의 남은 자들과 동일시되는 것은 흥미롭다. 더욱이 이사야 2-12장의 구조 역시 이사야 9-11장에 나타나는 종말의 시온으로 몰려올 남은 자들이 다름 아닌 이사야 2-4장에 묘사된 시온으로 몰려올 열방의 백성들과 연결되고 있음은 눈여겨 볼만하다.

3.2. 이사야 2:2-4과 선행 단락과의 연관성

이사야 2:2-4은 후속 단락들과의 구조적 연관성뿐만 아니라 선행 단락인 이사야 1장과도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다. 앞서 박경철이 잘 지적했듯이, 이사야 2:2-4은 이사야 1장과 함께 전체 이사야서의 방향과 의도를 결정 지워준다. 예를 들면, 이사야 2:1의 표제는 이사야 1:1의 표제와의 연관성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흥미롭게도 이사야 2:1의 표제가 이사야 2-12장이라는 독립 단위를 이끄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사야 1:1의 표제를 연상시키는 것도 사실이다. 이사야 1:1은 이사야가 보았던 “계시”(חֲזוֹן)로 소개되는 반면, 이사야 2:1은 이사야가 “보았던 그 말씀”(חֲזוֹן אֲשֶׁר רָאָה)으로 간주된다. 흥미롭게도 이사야 1:1과 이사

야 2:1은 “보았다”라는 의미의 명사와 동사를 함께 사용하여 표제의 상호 연관성을 시사해준다. 나아가 이 표제의 상호 연관성은 이사야 1:1에 소개된 이사야의 계시가 이사야 1:1에 언급된 8세기 왕들의 시대 뿐만 아니라 이사야 2:1에 묘사된 종말의 시대를 포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점에 대해 웹(Barry G. Webb)은 매우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러한 표제의 반복의 영향은 우리로 하여금 처음부터 환상의 포괄적인 특성을 깨닫게 만든다. 이사야 1:1의 표제가 이사야 2:1에서 반복(echo)되고 있다는 점은, 이사야의 환상이 특별히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다루며 그 환상이 8세기의 어떤 특정한 왕들의 통치 때에 주어졌던 것임을 의미하면서도 그 환상이 범위 면에서 모든 열방을 포괄하며 종말 그 자체까지로 확대됨을 암시한다.²²⁾

종합하자면 이사야 1:1과 이사야 2:1의 반복적 등장은 전자의 “웃시야 시대에”와 후자의 “말일에”의 시대를 포괄하는 이사야의 환상의 연속성을 반영해 주며, 이사야 2:2-4을 선행 단락인 이사야 1장과 결속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 점에 대해 랜디(Francis Landy) 역시 이사야 1:10-26과 이사야 2:2-4을 비교, 분석하면서 전자를 토라에 대한 불순종으로, 후자를 토라에 대한 순종으로 반응하는 시온의 상반된 이미지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면서 두 본문의 상호 연관성에 주목한다.²³⁾ 이처럼 이사야 1장과 이사야 2:2-4은 서로 다른 시온의 운명을 부각시키면서 타락한 시온에서 회복될 시온으로의 방향 전환을 제시한다.

22) Barry G. Webb, “Zion in Transformation: A Literary Approach to Isaiah,” David J. A. Clines, Stephen E. Fowl, and Stanley E. Porter, eds., *The Bible in Three Dimensions: Essays in celebration of forth years of Biblical Studies in the University of Sheffield*, JSOTSup 87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0), 68.

23) Francis Landy, “Torah and Anti-Torah: Isaiah 2:2-4 and 1:10-26,” 317-334.

더욱이 이사야 1장에 등장하는 시온은 형식적 제의에 빠져 토라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시온의 백성들에 대한 비난(비록 시온의 회복을 언급하고 있지만)을 집중적으로 반영하는 반면, 이사야 2:2-4는 토라에 귀를 기울이는 종말의 시온의 회복에 초점을 둔다. 다시 말해, 이사야 1장과 이사야 2:2-4는 토라를 듣지 않는 시온에서 토라를 듣는 시온으로 전환하는 것을 크게 부각시킨다. 그러므로 이사야 1장과 이사야 2:2-4는 토라를 “듣는 것”(Hearing the Torah)이 시온의 회복과 결부되어 있음을 일깨워준다. 이와 같은 “들음”(Hearing)의 중요성은 앞으로 살펴볼 이사야 2장 이후에 등장하는 전체 이사야서의 맥락 속에서 크게 반영된다.

3.3. “들음”(Hearing)의 관점에서 본 이사야 2:2-4과 기타 중심 단락들과의 연관성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사야 1장에 묘사된 토라를 듣지 않는 시온의 이미지는 이사야 2:2-4에 이르러 토라에 귀를 기울이는 시온의 이미지로 급반전된다. 이와 같은 반전은 토라에 귀를 막는 시온에서 토라에 귀를 기울이는 시온으로의 전환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사야서 전체의 의도를 보여주며, 무엇보다도 “들음”의 이슈를 부각시킨다.²⁴⁾ 예를 들면, 이사야서를 한 권으로 읽도록 이끌어 주는 서론과 결론으로서의 이사야 1장과 이사야 65-66장 그리고 이사야서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해 주는 이사야 36-39장 모두가 “들음”의 이슈와 깊이 연관된다.

24) 가령, 클레멘츠(R. E. Clements)는 편집적 통일성에 근거하여 “눈 멀고 귀머무”(blindness and deafness)의 주제를 연구한 바 있다[R. E. Clements, *Old Testament Prophecy: From Oracles to Can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6), 78-92]. 그러나 이사야서의 자료들이 주전 587년 예루살렘 함락 때 살아 남은 생존자들을 위해 다시 개정되었다는 그의 이사야서의 편집적 통일성에 대한 이해는 다소 주관적 가설에 기초한다.

특히 이사야 1장과 이사야 65-66장은 듣지 않는 악인과 듣는 의인의 대립 구도를, 이사야 36-39장은 듣지 않는 아하스와 듣는 히스기야의 상반된 이미지를 제공하며, 독자들이 이사야 1장과 이사야 2:2-4에 나타나는 듣지 않는 시온과 듣는 시온의 상반된 이미지와 결부하게 하며, 무엇보다도 “들음”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준다.

3.3.1. 듣지 않는 악인과 듣는 의인

최근 이사야서의 통일성에 관심을 두는 학자들은 이사야서의 통일성의 증거로서 이사야 1장과 이사야 65-66장의 인클루지오 구조를 강조한다.²⁵⁾ 원래 이사야 1장과 이사야 65-66장의 연구는 1950년에 출간된 리브라이히(L. J. Liebreich)의 논문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래크(R. Lack)의 분석으로 더욱 발전되었다. 위의 학자들은 이사야 1장과 이사야 65-66장은 유사 주제들과 단어들을 공유하여 이사야서의 서론과 결론 역할을 수행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인식은 최근의 학자들의 연구에서 더욱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특히 이사야 1장과 이사야 65-66장에 나타나는 의인과 악인의 대립과 분열은 이사야서의 통일성을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먼저 이사야 1장에 나타난 두 그룹의 갈등을 살펴보자. 이사야서 전체의 서론 역할을 수행하는 이사야 1장은 타락한 이스라엘의 부패를 비난하며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절망적인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이사야 1장의 주제 구성은 다음과 같은 교차대구를 이룬다<표 3>.

25) 예를 들면, Marvin A. Sweeney, *Isaiah 1-4 and the Post-Exilic Understanding of the Isaianic Tradition* (Walter de Gruyter: Berlin, 1998); idem, “Prophetic Exegesis in Isaiah 65-66,” C. C. Broyles and C. A. Evans, eds., *Writing and Reading the Scroll of Isaiah* (Leiden: Brill, 1997), 455-474; David M. Carr, “Reading Isaiah from Beginning (Isaiah 1) to End (Isaiah 65-66): Multiple Modern Possibilities,” Roy F. Mulugin and Marvin A. Sweeney, eds., *New Visions of Isaiah*, JSOTSup 214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188-218을 보라.

<표 3>

- A. 배역한 이스라엘의 현재상(2-4절)
- B. 심판을 경험한 이스라엘(5-9절)
 - C. 공의를 상실한 살인자들에 대한 비난(10-15절)
 - D. 회개 요청(16-20절)
 - C'. 공의를 상실한 살인자들에 대한 비난(21-23절)
 - B'. 심판을 경험하게 될 이스라엘(24-27절)
- A'. 배역한 이스라엘의 미래상(28-31절)

이사야 1장은 의로운 남은 자 공동체를 1인칭 복수형(‘우리’)으로 묘사하는 반면, 남은 자를 대적하는 악인들을 주로 2인칭 복수형(‘너희’)으로 소개한다(5절, 7절, 10절). 그들은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자식들처럼 여호와와 말씀을 떠나 불의를 일삼으면서도 형식적인 제의에 집중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취한다. 흥미롭게도 이사야 1장에 등장하는 남은 자와 대적자의 근본적인 차이는 토라에 대한 그들의 반응에 있다. 이사야 1:10은 그들의 정체성의 근본적 차이를 잘 드러내 준다<표 4>.

<표 4>

- A.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 B. 여호와와 말씀(דְבַר יְהוָה)을 들을지어다
- A'.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 B'. 우리 하나님의 법(תּוֹרַת אֱלֹהֵינ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구절에서 “여호와와 말씀”과 “토라” 병행을 눈여겨 볼만하다. 그러므로 이 병행 구조는 여기에 등장하는 토라를, 부패한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도록 이끌어준다. 특히 토라를 듣는 “우리”와 토라를 거부하는 “너희”의 대조는 두 그룹의 대립 구도

를 암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사야 1장의 구조는 부패한 대적자 공동체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심판에서 벗어나 회복으로 가는 길은 오직 토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만약 이 악인들이 토라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거부한다면 결국 그들은 최후의 멸망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온의 운명은 오직 토라를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

흥미롭게도 이사야 1장과 마찬가지로, 결론부에 해당하는 이사야 65-66장 역시 의인과 악인의 첨예한 갈등을 나타내준다. 예를 들면 이사야 65-66장은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회복의 주제가 반복적으로 전개되는 구조를 보여준다<표 5>.26)

<표 5>

- A. 악인의 심판(65:1-16)
- B. 의인의 회복(65:17-25)
- C. 악인의 심판(66:1-6)
- D. 의인의 회복(66:7-14)
- C' 악인의 심판(66:15-17)
- B'. 의인의 회복(66:18-21)
- A'. 악인의 심판(66:22-24)

이처럼 이사야 65-66장은 이사야 1장처럼 의인과 악인의 상반된

26) 이사야 65-66장의 구조 분석에 있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다. 스위니는 이사야 65-66장을 세 단락(65:1-7; 65:8-25; 66:1-24)으로 나눈 뒤, 이사야 65장은 악인에 대한 여호와의 선언으로 보는 반면(Marvin A. Sweeney, "Prophetic Exegesis in Isaiah 65-66," 453-474), 이사야 66장은 의인에 대한 여호와의 선언으로 이해한다. 반면에 카이는 이사야 65-66장을 크게 두 단락(65:1-66:4; 66:5-24)으로 구분한 뒤, 전반부를 악인에 대한 여호와의 선언으로, 후반부를 의인에 대한 여호와의 선언으로 간주한다(David M. Carr, "Reading Isaiah from Beginning to End," 211-212).

운명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열쇠로서 토라에 대한 “들음”을 강조한다. 특히 두 그룹의 대립이 극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이사야 66:1-6은 유사 단어 반복으로 수사적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²⁷⁾ 무엇보다도 여호와와의 말씀으로 인해 떠는 자들로 묘사된 의인들과 여호와와의 말씀을 거부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과의 묘사된 악인들의 대조를 극대화시킨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 부류의 그룹은 또 다른 그룹을 미워하며 그들을 핍박한다(5절). 여기서 핍박을 당하는 이들은 남은 자나 의인으로 묘사되며, 이들을 공격하는 자들은 대적자나 악인으로 간주된다(6절).

그렇다면 의인과 악인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규정되는가? 그것은 바로 토라에 대한 반응이다. 남은 자들은 여호와와의 말씀에 대해 떨면서 반응하지만(2절; 5절), 대적자들은 “여호와가 불려도 대답지 않으며 여호와가 말하여도 청종하지 않는다(4절). 그러므로 토라를 “들음”은 시온의 백성의 표지로서 강조된다. 종합하자면, 이사야 1장과 이사야 65-66장은 토라를 듣지 않는 악인들과 토라에 귀를 기울이는 의인의 대조적인 모습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토라에 귀먹은 부패한 시온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토라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한다.

3.3.2. 듣지 않는 왕과 듣는 왕

이사야 1장과 이사야 65-66장과 아울러, 이사야 36-39장 역시 이사

27) 이사야 66:1-6의 교차 대구적 구조는 다음과 같다.

- A. 하늘과 땅을 **거처**로 삼으시는 주님(1절)
- B. 여호와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2절)
 - C. 가증한 것을 **기뻐하며** 자기의 길을 **택하는** 자(3절)
 - C'.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하는** 자(4절)
- B'. 여호와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들**(5절)
- A'. 성읍과 **성전**에서 들려오는 여호와와의 보응의 목소리(6절)

아서의 통일성을 입증해 주는 중요한 열쇠로서 이해되어 왔다.²⁸⁾ 특히 여러 학자들은 이사야 7-8장에 등장하는 아하스 이야기와 이사야 36-37장에 소개되는 히스기야 이야기의 대조적인 이미지에 초점을 둔다. 실제로 이사야 6장에 나타난 이사야의 소명 이야기는 이사야 시대 당시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반영해 준다. 비록 아하스 이야기와 히스기야 이야기의 유사성이 두드러지지만, 그런 유사성 속에서 두 이야기는 두 왕의 대조적인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켜준다. 특별히 선지자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 왕의 반응은 상반된다. 먼저 아하스의 이야기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그의 아들 스알야습을 데리고 아하스 왕을 찾아간다(사 7:1-4). 아람 에브라임 동맹 연합군에게 위협을 받자 앗수르 왕에게 원조를 요청하며 친 앗수르 정책을 견지하던 아하스에게 선지자 이사야는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면 동맹군의 시도는 실패로 끝날 것이며, 시온의 백성은 침략 속에서도 살아 남을 것이라고 약속한다. 그러나 아하스는 이사야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오히려 앗수르의 힘과 능력을 더욱 의존한다. 그러나 이사야는 여호와와의 말씀을 버리고 앗수르를 선택했던 유다는 결국 앗수르에게 침략을 당한다고 예언한다(사 7:6-8). 다시 말해, 이 아하스의 이야기는 이사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즉 토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방의 열강을 의지하는 시온의 운명이 실패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준다. 그러므로 아하스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하스 왕은 토라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영적 귀머거리를 대변해 주며, 이사야 시대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가늠하게 해 준다(사 6:9).

그러나 아하스 왕과는 달리, 히스기야 이야기에서 히스기야는 이방

28) 예를 들면, 스위니, 차일즈, 다아 및 콘래드와 같은 학자들은 이사야 36-39장의 기능을 통해 이사야서의 통일성을 논증한다. 특히 스위니는 편집적 관점을, 차일즈는 정경적 관점을, 다아와 콘래드는 문학적 관점을 통해 자신들의 논증을 뒷받침한다. 구체적인 논의로는 장세훈, 『한 권으로 읽는 이사야서』, 140-151을 참조하라.

의 힘을 빌어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사야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다. 무엇보다도 유다를 침공한 앗수르의 왕 산헤립은 수사법에 능한 랍사게를 보내 군사적 침략 대신에 말로 설득하여 항복을 이끌어 내려한다. 흥미롭게도 랍사게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앗수르 왕의 말씀”을 들을 것을 촉구한다. 이사야 36장에서 “앗수르 왕의 말씀”을 재차 반복하는 랍사게의 메시지는 흥미롭다.

- * 대왕 앗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מִלִּשְׁמָע)하시기를(4절),
- * 대왕 앗수르 왕의 말씀(מִלִּשְׁמָע)을 들으라(13절),
- * 왕의 말씀(מִלִּשְׁמָע)에(14절),
- * 앗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מִלִּשְׁמָע)하시기를(16절).

랍사게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오직 앗수르 왕의 말을 듣고 항복할 것을 종용한다. 여기서 랍사게가 군사적 공격보다는 유다 방언으로 유다를 공격하고 있음은 눈여겨 볼만하다. 군사적 전투가 아닌, “말”(word)을 통한 전투가 시작된 것이다. 이사야 36:13-20에 나타난 랍사게의 메시지는 앗수르 왕의 말씀에 대한 강조를 더욱 부각시킨다<표 6>.

<표 6>

- A.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14-15절)
- B. 앗수르 왕의 말을 듣고 항복하라(16-17절)
- A'.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18-20절)

유다 백성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랍사게는 오직 앗수르 왕의 말만 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정치적 수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아하스의 전철을 밟기보다는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여호와와의 약속을 의지한다. 놀랍게도 이사야 37:36-38은 히스기야가 여호와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신뢰할 때 이사야를 통해 약속된 앗수르의 멸망이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일깨워준다. 그러므로 이사야 36-37장에 등장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은 여호와와의 말씀을 듣는 시온의 이상적 이미지와 분리되지 않는다.

4. 나가는 말

앞에서 살펴본 대로, 아하스 이야기에서 아하스 왕은 토라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히스기야 왕은 토라에 귀를 기울인다. 그러므로 아하스 이야기와 히스기야 이야기는 독자들이 시온의 운명이 여호와와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해 준다. 또한 이사야 1장과 이사야 65-66장에 나타난 악인과 의인의 대립 구도 역시 토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온의 이상적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준다. 이와 같은 “들음”(Hearing)의 중요성은 이사야 1장과 이사야 2:2-4에서 이미 암시되고 있다. 부패한 시온과 회복될 시온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토라에 대한 반응에 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전체의 맥락은 시온의 회복이 오직 토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전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듣지 않는 시온에서 듣는 시온으로의 전환을 부각시키는 이사야 1장과 이사야 2:2-4의 구성적 위치는 듣지 않는 왕과 듣는 왕, 그리고 듣지 않는 악인과 듣는 의인의 대립 구도를 이해하는 열쇠와 실마리로 작용하며, 전체 이사야서에 반영된 “들음”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이끌어준다. 더욱이 이사야서의 최종 형태는 그 구성의 시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듣지 않는 시온과 듣는 시온의 상반된 이미지를 제시하는

이사야의 환상은 어느 특정한 시대를 위해 전달된 것이라기보다는 모든 세대를 위해 열려 있는 하나님의 계시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사야의 환상이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의 우리들에게 여전히 적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소여(John Sawyer)의 진술은 의미심장하다.

이 책[이사야서]은 하나의 ‘비전’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리고 선지자가 언제 살았는지 그의 ‘말들’은 그가 속했던 시대의 인접한 역사적 상황을 초월한다. 그의 말들은 주전 8세기 예루살렘 거민들, 혹은 6세기 바벨론 포로 백성에게 전달될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전달되고 있다.²⁹⁾

이처럼 이사야의 환상은 기독교를 개독교로 비판하는 세상의 목소리에 직면한 한국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완고한 시온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 때문에 떨면서 반응하는 겸손한 시온의 남은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고 촉구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이사야의 외침은 영적 청력을 상실한 한국 교회를 향해 여전히 적실한 권고로 다가온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사 1:10; 사 66:5)

<주요어>

이사야서의 최종 형태, 이사야 2:2-4, 시온, 토라, 이사야서의 통일성

<Key words>

The Final Form of the Book of Isaiah, Isaiah 2:2-4, Zion, The Torah, The Unity of the Book of Isaiah

* 접수일 2011년 2월 25일, 수정일 2011년 3월 2일, 게재 확정일 2011년 3월 2일

29) John F. A. Sawyer, *Isaiah* 1, The Daily Study Bible 1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4), 3.

참고문헌

- 박경철, “이사야서 최종 형태 구성의 신학,” 『Hermeneia Today』 31 (2005), 4-14.
- 장세훈, “이사야서의 정경적 해석동향,” 『구약논단』 22 (2006), 46-63.
- 장세훈, 『한 권으로 읽는 이사야서』, 서울: 이레서원, 2004.
- Ackroyd, Peter R., “A Note on Isaiah 2, 1,” *ZAW* 75 (1963), 320-321.
- Carr, David M., “Reading Isaiah from Beginning (Isaiah1) to End (Isaiah 65-66): Multiple Modern Possibilities,” Roy F. Mulugin and Marvin A. Sweeney, eds., *New Visions of Isaiah*, JSOTSup 214,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188-218.
- Clements, R. E., *Old Testament Prophecy: From Oracles to Can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6.
- Coggins, Richard J., “Do We Still Need Deutero-Isaiah,” *JSOT* 80 (1998), 77-92.
- Conrad, Edgar W., *Reading Isaiah*,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1; 장세훈 역, 『이사야서 읽기』,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2.
- Duhm, Bernhard, *Das Buch Jesaja*, HKAT 3.1, Tübingen: Vandenhoeck & Ruprecht, 1892.
- Gitay, Yehoshua, *Isaiah and His Audience: The Structure and Meaning of Isaiah 1-12*, studia semitica neerlandica, Assen/Maastricht: van Gorcum, 1991.
- Landy, Francis, “Torah and Anti-Torah: Isaiah 2:2-4 and 1:10-26,” *Biblical Interpretation* 11 (2003), 317-329.
- Mogonet, Jonathan, “Isaiah 2:1-4:6: Some Poetic Structures and Tactics,” *Amsterdamse Cahiers* 3 (1982), 71-85.
- Mulugin, Roy F., “Prophetic Books and the Problem of Historical Reconstruction,” Stephen Breck Reid, ed., *Prophets and Paradigms: Essays in Honor of Gene M. Tucker*,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63-78.
- Mulugin, Roy F., “The Book of Isaiah and the Construction of Meaning,” Craig

- C. Broyles and Craig A. Evans, eds., *Writing and Reading the Scroll of Isaiah: Studies of Interpretive Tradition*, Leiden: Brill, 1997, 39-55.
- Sawyer, John F. A., *Isaiah 1*, The Daily Study Bible,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4.
- Seitz, Christopher R., *Zion's Final Destiny: The Development of the Book of Isaiah*, Minneapolis: Fortress, 1991.
- Smith, Gary V., *Isaiah 1-39*, NAC, Nashville: B&H Publishing Group, 2007.
- Steck, Odil Hannes, *The Prophetic Books and Their Theological Witness*, St. Louis: Chalice Press, 2000.
- Sweeney, Marvin A., “Prophetic Exegesis in Isaiah 65-66,” C. C. Broyles and C. A. Evans, eds., *Writing and Reading the Scroll of Isaiah*, Leiden: Brill, 1997, 455-474.
- Sweeney, Marvin A., “The Book of Isaiah as Prophetic Torah,” Roy F. Melugin and Marvin A. Sweeney, eds., *New Visions of Isaiah*, JSOTSup 214,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50-67.
- Sweeney, Marvin A., *Isaiah 1-39: with an Introduction to Prophetic Literature*, Grand Rapids: Eerdmans, 1996.
- Sweeney, Marvin A., *Isaiah 1-4 and the Post-Exilic Understanding of the Isaianic Tradition*, Walter deGruyter: Berlin, 1988.
- Webb, Barry G., “Zion in Transformation: A Literary Approach to Isaiah,” David J. A. Clines, Stephen E. Fowl, and Stanley E. Porter, eds., *The Bible in Three Dimensions: Essays in celebration of forth years of Biblical Studies in the University of Sheffield*, JSOTSup 87,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0, 65-84.
- Williamson, H. G. M., “Recent Issues in the Study of Isaiah,” David G. Firth and H. G. M. Williamson, eds., *Interpreting Isaiah: Issues and Approaches*, Downers Grove: IVP Press, 2009, 21-40.
- Williamson, H. G. M., *The Book Called Isaiah: Deutero-Isaiah's Role in Composition and Redaction*, Oxford: Oxford Press, 1994.

<초록>

시온의 토라와 “들음”의 이슈에 대한 고찰

-최종 형태에서 본 이사야 2:2-4의 역할을 중심으로-

장세훈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본 논문은 이사야서의 최종 형태의 맥락에서 이사야 2:2-4의 역할에 초점을 둔다. 이사야 2:2-4은 후속 단락들과의 구조적 연관성뿐만 아니라 선행 단락인 이사야 1장과도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다. 예를 들면, 이사야 2:1의 표제는 이사야 1:1의 표제와의 연관성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이사야 2:1의 표제가 이사야 2-12장이라는 독립 단위를 이끄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사야 1:1의 표제를 연상시키는 것도 사실이다. 이사야 1:1은 이사야가 보았던 “계시”(חֲזִיוֹן)로 소개되는 반면, 이사야 2:1은 이사야가 “보았던 그 말씀”(הַדְבָר אֲשֶׁר רָאָה)으로 간주된다. 흥미롭게도 이사야 1:1과 이사야 2:1은 “보았다”라는 의미의 명사와 동사를 함께 사용하여 표제의 상호 연관성을 시사해 준다. 나아가 이 표제의 상호 연관성은 이사야 1:1에 소개된 이사야의 계시가 이사야 1:1에 언급된 8세기 왕들의 시대뿐만 아니라 이사야 2:1에 묘사된 종말의 시대를 포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이사야 1장과 이사야 2:2-4은 듣지 않는 시온에서 듣는 시온으로의 전환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들음”의 중요성은 이사야서의 서론과 결론으로 작용하는 이사야 1장과 65-66장, 그리고 이사야서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어주는 이사야 36-39장 속에서도 동일하게 강조되며, 전체 이사야서의 의도를 반영해 준다.

<Abstract>

Zion's Torah in Isaiah 2:2-4

Prof. Se-Hoon Jang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eek to show how Isaiah 2:2-4 plays a significant role in the final form of the book of Isaiah. It is widely agreed that the oracle in Isaiah 2:2-4 set forth one of the most eschatological pictures in the Old Testament in which Zion is identified and elevated not only as the world governmental center but also as The God's dwelling place to which the nations would go on to a pilgrimage in the latter days. Interestingly the passage offers a sublime presentation in which the Torah will emanate from Zion so that the pilgrims who long to learn it will gain an insight into God's ways and walk in them. It is noteworthy, furthermore, that Zion's Torah and its role in Isaiah 2:2-4 lead us to the importance of hearing the Torah that is demonstrated in Isaiah 1 and 65-66 and Isaiah 36-39. Special Attention is paid to how Zion's Torah in Isaiah 2:2-4 play a pivotal role in understanding the book of Isaiah as a whole.

